송 년 사

노동부장관 이 연 택

존경하는 조규상 회장님을 비롯한 산업보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1992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 본인이 초대되어 여러분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산업보건사업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에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노동자 건강관리 내실화의 발판을 구축하였고,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의 정도관리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산업보건, 위생사업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보건 분야의 전문연구진흥 및 인력육성을 위하여 3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직업병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였고, 국내외의 교육기관에서 산업의학을 전공하는 10여명의 젊은 의학도들에게 약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산업보건용 장비구입시 총 3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직업병예방종합대책을 가시화하여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년 9월부터는 노사단체 및 언론기관과 함께 『밝고 건강한 무재해일터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범국민적인 무재해 1,000만명 서명 캠페인을 펴고 있으며 오늘 현재 4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저는 근로자들이 쾌적한 직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한몸 돌보지 않고 불철주야 일함으로써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대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산업보건 관련제도의 보완과 정착에 힘쓰는 한편, 지속적으로 산업의학전문의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올해보다 예산을 90% 증액하여 산업위생, 간호부문까지 장학금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보건, 위생용장비 구입시 1/3상당의 국고보조사업도 늘리고 연구용역사업도 계속하

"이제는 자기한몸 돌보지 않고
불철주야 일함으로써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대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시점"

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종래 미처 돌보지 못하였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약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여러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현재 그 구체적인 모델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것이며 그를 위한 산업보건사업도 한 두해에 끝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가 단순히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배전의 각오를 가지고 더욱 큰 노력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결의의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산업보건분야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협회 주최로 지난 '92. 12. 11. 서울팔레스 호텔에서 200여명의 산업보건 관련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보건 발전을 위한 화합의 밤을 가졌다.